

어쩐지 이상해

(정신 지체 2)

I. 구급차에 실려 온 남자

39세 남자인 K씨가 119 구급대에 의해 실려 왔다.

그는 부인과의 말다툼 끝에 집안의 집기를 모조리 깨부수는 난동을 피우다가 보다 못한 가족들에 의해 강제 입원이 된 것이었다. 부인은 남편이 3년 전에도 비슷하게 난동을 피워 대고 엉뚱한 소리를 하여 어쩔 수 없이 경찰관을 불러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적이 있었다고 했다.

K씨는 몹시 씩씩거리며 병원에 끌려왔는데 정작 폐쇄 병동에 들어가자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으며 대화하는 동안에도 분노 발작을 보이거나 엉뚱한 말을 하거나 하지 않아 짐짓 정신병 환자라고는 느껴지지 않았다.

대졸의 학력에 체격도 좋은데다가 잘 생긴 얼굴을 하고 있는 그는 아주 담담한 표정으로 자신에게 쏟아지는 질문을 천천히 잘 대답하였다. 생긴 모습이나 굵고 낮은 목소리가 꼭 영화배우 남궁 아무개씨와 비슷하다는 느낌을 주었다. 그는 자신이 난동을 피운 이유를 “사업에 실패하여 속상해서 그랬다”며 간단명료하게 대답했다. 그의 말투나 태도로 보아 119 구급대가 출동했다는 사실이 의아스러울 정도였다.

면담 끝에 그는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어서 정말로 고맙다. 선생님은 진짜 의사이시다”라며 아주 깎듯이 절을 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마치 초등학교생이 외워서 말을 하는 것처럼 어딘지 모르게 어색한 구석이 있었으며 자신의 현재 처지와 생각의 흐름이 동떨어지는 것 같은 부적절한 느낌을 주었다.

병동을 나와서 부인과 면담을 했다. 부인은 “살면 살수록 남편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게 어찌된 조화인지 알 수 없다고 푸념을 늘어놓았다.

대화를 하는 느낌이 남편과는 전혀 달랐다. 그녀는 상대방이 무엇을 묻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묻지 않은 부분까지도 “선생님께 이것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라며 소상히 이야기해주는 ‘재치형’이었다. 남편이 지극히 점잖고 과묵한 인상을 주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그 부

인은 생각이 빠르고 말도 많아서 ‘바쁘다’는 느낌과 동시에 영특하다는 느낌을 주었다.

부인이 이야기 해주는 내용은 대강 이러했다.

K씨와 그의 부인은 5공화국 시절 강남에서 아주 잘 나가는 요식업소를 경영했다. 시중드는 여자들에게 한복을 입히는 고급 음식점이었는데, 그 때문에 그 부부는 당시에 정치적으로 유명한 몇몇 인사들과도 꽤 많은 교분을 갖게 되었다.

부인은 영업이 잘 되었던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눈치였다. 그녀는 말주변에 능한 자신이 직접 정치인들을 상대로 영업을 했을 뿐 아니라 덩치도 크고 영화배우처럼 잘 생긴 남편이 늘 말수도 없이 점잖게 접대를 잘 해 왔기 때문에 인기가 그만이었다고 회상했다.

어떤 정치인은 남편을 동생이라 부르며 매우 아끼고 위해 주어서 “이러다가 남편이 정치를 시작하는 것 아닌가”하는 선부른 기대까지도 했다고 한다. 그 때는 현찰을 만지는 것이 하루에 기백만 원이 넘어 재벌이 부럽지 않았다.

이 사업에 자신을 얻은 그들은 얼마 안 있어 영등포에 십 억 이상의 돈을 들여 같은 업종으로 분점을 열게 된다. 그러나 그곳은 강남의 본점과는 반대로 유지하는데 만도 한 달에 천 만 원 이상씩이 손해나는 자충수(自充手)가 되고 말았다. 잘 될 것으로만 믿고 거액의 융자를 받았던 것이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날로 늘어나는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한쪽에서 벌고 한쪽으로 쏘서 박는 악순환이 일 년여 이상 지속되었다.

안되겠다 싶어서 새로 시작한 업소를 빨리 정리하려고 했지만 워낙 덩치가 커서 임자가 나서지 않았다. 그럴 즈음 때맞추어 공직자 윤리 쇄신인가 뭔가가 불거지면서 잘 되던 강남의 장사도 소원해지고 결국 그들은 시끄럽지 않게 가게를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 부도 처리되면서 수억의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

서울에서 가게를 정리한 그들은 빚을 잔뜩 짊어진 채 낙향했다. 다행히도 지방의 재산가인 시아버지가 일부 빚 정리를 해주고 또 빠릿빠릿한 부인이 직장을 잡아서 두 아들 먹여 살리고 학교 보내는 데는 지장이 없었다고 한다.

잘 생긴 남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하고 세탁기 돌리고 청소하면서 부인과 두 아들이 귀가하기를 기다리는 가정주부의 역할을 맡았다.

처음 부인이 우려했던 것과 달리 그는 그 일을 아주 우직하게 잘 해 나오고 있었다.

부인은 “남편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다”고 했다. 한편으로 언제나 묵묵히 이야기를 듣기만 하고 좀체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는 법이 없는 남편이 답답하기는 해도 늘 자신의 결정에 따라 준 것이 고맙다고도 했다. 그러나 어쩌다 한 번 씩은 별 일 아닌 것으로 꺾을 수 없는 고집과 난동을 피워서 부인은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웠다.

II. 걱정이 없는 이유

어쩐지 이상했다.

대졸의 학력에 영화배우처럼 잘 생긴 남편 K씨는 강남에서 그렇게 큰 사업을 하다 폭삭 망하고 빚더미에 앉았다는 데도 이상할 정도로 마음의 갈등이 없는 것 같았다. 오히려 부인 대신 밥하고 빨래하며 아침저녁 부인과 두 아들을 배웅하고 맞이하는 일을 마치 천직(天職)인양 잘 해 나오고 있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난동을 부리고 응급 입원 된 것 또한 이해하기 어려운 삽화였다. 의문이 강하게 일어났다. 그 때문에 부인에게 남편의 부모님을 꼭 한 번 모시고 오라고 했다.

한편 병동에 입원한 K씨는 날이 갈수록 얼굴이 흰해지고 아무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 마냥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잤다.

정신과적 면담이 진행되었다. 면담을 하면 할수록 의문은 점점 더 확대되어 갔다.

그는 자신이 그렇게 잘 나가던 대형 요식업소의 사장이었고 분점을 내어 사업 확장을 꾀했으면서도 그 일에 대해서는 심각할 정도로 회상(回想)할 내용이 없었다.

“돈을 받는 일은 직원이 했고, 계산 맞추는 것은 마누라가 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 때는 많이 벌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사업했습니다.”

패장(敗將)의 답답한 회한인지 개념의 혼탁인지 아리송한 대답 그 이상은 듣지 못 했다. 영등포의 분점에 대해서도,

“땅 사서 거기에다 건물 짓고 강남 것하고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십 억 더 들었어요.”

라고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얼마까지가 은행 융자인지도 모르고 건축비가 얼마나 들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우리 마누라가 다 알고 있어요.”

그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그것도 은행 융자를 끼고 하는 사업에서 투자의 주체가 무얼 하는지 얼마를 쓴지 모른다면 그것은 이미 시작도 하기 전의 실패였다.

며칠 뒤 K씨의 아버지가 혼자 조용히 찾아왔다.

“그놈 자식 옛날에는 안 그러더니 요즘에는 한 번씩 난리 피우면 집안이 다 들썩거려요”라며 푸념하였다. K씨의 어린 시절에 대해 질문을 하니,

“아이고 말도 말아요. 그놈, 어렸을 때부터 공부는 풀등만 말아 놓고 했어요. 그놈 공부 못

해서 학교에서 쫓아낸다는 걸 이것저것 사다 바치고 학교에다 나무 심어 주고 장학금 내놓고 그렇게 다녔어요. 그놈 때문에 뭉텅이 돈을 썼다니까. 그래도 애가 뼈떨어지지는 않아서 아주 선생들 눈 밖에 나지는 않았지요. 아, 예비고사도 떨어져 가지고 할 수 없이 거짓으로 특기 장학생을 만들어서 돈 주고 똥구멍으로 대학을 집어넣었다니까요. 학점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걸 내가 다 찾아다니며 만들어 주었지. 그만큼이나 했으니까 그런 똑똑한 며느리 얻었지요. 그 며느리가 우리 집안 보배요.”

그 다음 시간 K씨와의 면담은 좀 피상하게 진행되었다.

“인간이란 사유(思惟)할 수 있는 피조물(被造物)라는 것이 종(種)으로서 확연히 구분 가능한 특질(特質)인 것 같습니다. K씨의 고견(高見)은 어떠신가요?”

“사람들은 사고(思考)의 영역(領域)에 제한(制限)받지 않지요. 여기 입원해 있는 환우(患友)들은 그런 점이 단지 통상적(通常的) 수준(水準)을 넘는다는 점에서 보통과 다르다고 보는데 K씨의 경우는 어떤 것 같습니다?”

K씨는 심각한 의사소통의 벽에 부딪혀 버렸다. 며칠 뒤에 실시한 정밀 검사에서 그의 IQ는 67로 판명되었다.

가풍 있는 집안의 딸로 태어나 잘생긴 낭군과 중매 결혼했던 K씨의 부인은 자신의 남편이 ‘위풍 당당’ 걸모습과는 달리 ‘정신 지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혼절해 버렸다.

그녀는 준수하게 생기고 위엄 있는 얼굴을 한 남편에게 매일 매일 가게 일을 보고하고는 “당신이 알아서 해”라는 한마디 말에 트집 잡을 것 없는 남편이라는 무한한 존경과 경외(敬畏)의 신비로움을 느끼며 살았던 것이다. 추정컨대 K씨는 집안에 들어앉아 부인과 아이들의 뒷바라지를 하면서 집안 청소를 할 때, 말없는 세탁기를 돌릴 때 무척 평온하고 행복했으리라.

그 후 반년이 채 안되어 부인은 정식으로 이혼했다. 남편을 향한 자신의 경외심(敬畏心)은 면벽 수도(面壁 修道)의 외로움 이상은 아무 것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자신을 가장 귀여워했던 시아버지를 가장 많이 원망했다.